

12

December 2025
vol. 295

Style 조선일보

Ultimate
Luxury Lifestyle
Magazine

Gift Ideas





CHANEL
FINE JEWELRY

COCO CRUSH

SOME ENCOUNTERS YOU WEAR FOREVER.
RINGS AND BRACELETS IN BEIGE GOLD, WHITE GOLD AND DIAMONDS.



CELINE
PARIS

H
U
B
L
O
T

OWN IT



갤러리아 EAST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본점,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에비뉴엘 부산본점, 인천점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점, 대구점, 부산 센텀시티점, 대전 Art & Science
현대백화점 본점, 더현대 서울, 무역센터점, 판교점, 더현대 대구

Contents

DECEMBER 2025 / ISSUE.295

10_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12_SELECTION 레드와 그린이 만들어내는 선명한 대비로 홀리데이 시즌의 경쾌한 분위기를 완성해줄 아이템 리스트.

13_BRILLIANT IMPACT 극강의 반짝임을 품은 남성용 다이아몬드 워치 6.

14_여울기 시작하는 늦가을의 축제, 그리고 일본의 소프트 파워 글로벌 행사로 선언한 초기(2022년)부터 연례 나들이처럼 매년 방문해온 늦가을의 축제 '아트 워크 도쿄(Art Week Tokyo, AVT)'는 어느새 일본의 심장 같은 도시인 도쿄의 소프트 파워 증대를 절로 떠오르게 할 정도의 문화 예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성장해나가고 있다.

17_해방의 봄것이 '무위의 미학'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다채로운 무용의 세계를 선보여온 '댄스 리플렉션 BY 반클리프 아펠' 페스티벌. 지난가을 드디어 서울로도 찾아온 이 역동적인 축제의 끝자락에 전체 프로그램을 이끄는 세르주 로랑 디렉터를 만나봤다.

18_MAGIC OF DIVERSITY 수십 년 동안 행운을 상징해온 반클리프 아펠(Van Cleef & Arpels)의 알함브라(Ahambra) 컬렉션이 변형 가능한 룸 네크리스와 리버사를 링을 출시하며 또 한번 행운의 아이콘으로서 위치를 공고히 한다.



38



14

22_LOVE SIGNALS 수려한 디자인은 물론 그 속에 담겨 있는 사랑, 인연, 우정, 연결 등 변치 않는 마음과 영원성 역시 아름다운 로맨틱 주얼리.

23_ETERNAL LIGHT 프렌치 하이 주얼리 메종 부쉐론이 2025년 새로운 주얼리 컬렉션 '임페마너스(impermanence)'를 통해 또 한번 그들만의 자유롭고 대담한 하이 주얼리를 선보인다.

24_THE DREAMER 매년 설레는 홀리데이에 찾아오는 샤넬 워치 & 파인 주얼리 드림.

28_HOLIDAY WISHES 한 해의 끝, 감사와 사랑을 듬뿍 담아 어느 때보다 다채롭고 황홀한 홀리데이 선물 셀렉션.

40_BOOTS UP! 발을 감싸는 뛰어난 보온성, 편안한 착용감으로 무엇보다 겨울 스타일링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앵글부츠. 소재부터 디테일까지 모두 다른 다섯 가지 스타일의 부츠를 소개한다.

41_MAKE IT HOLIDAY 온 세상이 반짝이는 연말, 무한히 다양하고 화려해진 뷰티템을 만나볼 차례다. 지금이 아니면 구할 수 없는 특별 에디션이라 더욱 기슴 설레는 홀리데이 컬렉션.

42_EDITOR'S PICK 깊은 보석 효과의 보디 케어부터 포근한 향의 품 프레이그런스, 홀리데이 무드를 더하는 립 & 아이섀도까지. 12월 뷰티 서랍장을 채워줄 셀렉션.



stylechosun.co.kr
instagram.com/stylechosun

(스ти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티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티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kr

반클리프 아펠 알함브라 컬렉션이 새로운 시선으로 거듭난다. 새롭게 선보인 네크리스는 메종의 변형 가능한 전통을 계승해 룸 네크리스, 네크리스와 브레이슬릿 등 다양한 형태로 달착 가능한 최초의 작품이다. 기요세 로즈 골드, 그레이 마더오브펄, 화이트 마더오브펄로 이루어진 모티브를 비대칭으로 배치해 생동감을 선사한다. 문의 1877-4128



12

29



GRAFF
BUTTERFLY



Selection

레드와 그린이 만들어내는 신명한 대비가 겨울 둑에 생동감을 더한다.
홀리데이 시즌의 경쾌한 분위기를 완성해줄 아이템 리스트.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YOON JIYOUNG



총 0.49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
25개와 화이트·핑크
골드 & 레드 세라믹의 콤보로
레드 에디션 라지 릴
1천만원대 부쉐론.



위클로 02-540-1356
로에베 02-3479-1785
다미아니 02-515-1924
몽클레르 그레노블 0030-8321-0794
그라프 02-2256-6810
케링 아이웨어 02-517-6060
메종 마르지엘라 02-792-7780
블루마린 02-6905-3447
오메가 02-6905-3301
스와로브스키 02-1522-9065
셀린느 1577-8841
반클리프 아펠 1877-4128
부쉐론 02-6905-3322
루이 비통 02-3432-1854

레드 프레임이 선명한
포인트를 주는 캣아이
선글라스 55만5천원대 보테가
베네타 by 케어링 아이웨어

41mm 엘로 골드 케이스에
그린 다이얼과 레더
스트랩이 클래식한 무드를
베키하는 시마스터 300
5천3백만원대 오메가.

크리스탈과 믹스 백일 페일 소재로 이루어진
홀리데이 치어아스 기프트 19만7천원 스와로브스키.

립 니트와 풍성한
퍼프리밍이
조화를 이루는
레드 미디스커트
2백78만원
블루마린

벨벳 텍스처가
돋보이는 플랫폼
실루엣의 타비 샌들
펌프스 가격 미정
메종 마르지엘라.

에디션 홍보팀 김현정

Brilliant Impact

케이스부터 베젤, 크라운에 이르기까지 다이아몬드를 곳곳에 수놓았다. 극강의 반짝임을 품은 남성용 다이아몬드 워치 6. PHOTOGRAPHED BY PARK JAEYONG



(위부터 차례대로)
브레게 마린 크로노
그라프 직경 42.3mm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기요세 웨이브 패턴 다
이얼과 83개의 비게트 컷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아
워 마커, 그리고 90개의
비게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
팅한 베젤의 조합이 훤칠에
반짝이는 수면의 윤을 연
상시킨다. 가격 미정. 문의 02
-6905-3571 블랑팡 벌레레
울트라 슬림 로마숫자와 다이
아몬드 아워 마커, 기다란 중앙
초침, 3시 방향에 위치한 날짜창
의 균형미가 돋보인다. 시침과 분
침은 커다란 세이지 나뭇잎 형태
를 띠며 초침은 하우스 창립자인 이
나셀을 품고 있다. 4일간의 파워 리
저브가 가능한 셀프 우inding 무브먼트
1151을 장착했다. 4천5백27만원. 문
의 02-3479-1833 바쉐론 콘스탄틴
에제리 문파이즈 직경 37mm 화이트 골
드 케이스를 2백92개의 다이아몬드로
장식했으며, 다이얼에는 5백10개의 다이
아몬드를 풀 세팅해 하이 주얼리 뜻지않은
영광함을 자랑한다. 특히 1시와 2시 인덱스
대신 화이트 골드 벌과 사파이어 크리스탈
구름이 자리하고, 크라운에서는 로즈 컷 다이
아몬드가 빛난다. 스트랩은 세틴과 레더 스트
랩으로 호환 가능하다. 1억2천8백만원. 문의
1877-4136 위블로 빅뱅 유니코 킹 골드 주얼
리 직경 42mm 케이스부터 베젤, 인덱스 등에까
지 모두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72시간의 파워
리저브와 100m 방수 기능을 갖춘 HUB 1280

무브먼트로
구동 한다.
1억4천5백5
만원대. 문의 02
-3213-2277
반클리프 아펠 피에
르 아벨 남녀 모두 착용
가능한 직경 38mm 18K
로즈 골드 케이스에 다이아
몬드 베젤과 브리운 레더 스
트랩을 더했다. 특히 입은 케이
스를 통해 절제된 아름다움을 느
낄 수 있으며, 남성적인 우아함까
지 엿볼 수 있다. 가격 미정. 문의
1877-4128 에거 르클르트
원 뷰에도 주얼리 워치메이킹과 히이 주
얼리 메이킹의 기술력을 출현했다. 쟈스각
형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를 풀 세팅하고 실버
선레이저 다이얼, 유광 블랙 앤리게이터 레더 스
트랩을 추가해 화려함을 배가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6905-3998 에디션 김하연

아트 위크 도쿄(AWT) 2025

여물기 시작하는 늦가을의 축제, 그리고 일본의 소프트 파워

'도시의 세기'라고 일컬어지는 21세기에 접어든 지도 사반세기가 흐른 지금, 상대적으로 선망받는 메트로폴리스의 지형도는 여전할까? 돌이켜 볼 때, 등급과 체급을 높이기 위한 경쟁 구도는 서울, 상하이, 도쿄, 홍콩, 싱가포르 등을 품은 아시아에서 꽤 치열하게 진행돼왔다. 특히 팬데믹을 기점으로 현대미술을 앞세운 '문화도시'의 위상을 둘러싼 의미 있는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직간접적인 지원에 나선다. 도시 경쟁력을 둘러싼 이러한 전략적 움직임은 단순히 '선망의 대상'이 되겠다는 낭만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지난봄 타계한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조지프 S. 나이(Joseph S. Nye) 하버드 교수가 여전 분야에 걸쳐 각인시킨 개념인 '소프트 파워'를 염두에 둔 행보다. 글로벌 행사로 선언한 초기(2022년)부터 연례 나들이처럼 매년 방문해온 늦가을의 축제 '아트 위크 도쿄(Art Week Tokyo, AWT)'는 어느새 일본의 심장 같은 도쿄의 소프트 파워 중대를 떠오르게 할 정도의 문화 예술 플랫폼으로 차근차근 성장해나가고 있다. 처음에는 생태계의 느슨한 응집력이라든지 다소 소박해 보이는 면면도 지적됐지만, 동시에 아트 히브를 향해 정주하는 길목에서 지금의 도쿄가 지닌 독창적 가치, 예술 인프라, 물리적 환경 등을 아우르는 장단점을 감안한 세밀한 짜임새를 바탕으로 해마다 단계적인 진화를 이뤄내는 모습이 눈에 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는 상업적 페어도, 비엔날레 같은 현대미술 제전도 아닌 현재의 '하이브리드'적 속성이 더 커다란 판으로 진화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갖추게 될 정체성이 궁금해진다. 글로벌 미술계의 작은 사교장 같았던 오프닝 파티부터 존재감이 부쩍 강해진 아트 위크 도쿄 2025(11.5~9)는 그 궁금증을 더 짙게 만들었다.



A Growing Platform Brand



작품을 직접 사려는 구매의 동기든, 콘텐츠를 즐기려는 향유의 목적이든, 동시에 예술을 사고파는 장터인 아트 페어를 꾸준히 다니는 현대미술 애호가들은 가을이 되면 아시아만 훑기에도 바쁘다. 올해 캘린더를 놓고 보자면 9월 초온프리즈 서울이 있다면, 10월에는 아트 타이베이, 11월로 접어들면 초순에는 아트 위크 도쿄(Art Week Tokyo, 이하 AWT), 그리고 중순에는 아트 클래버레이션 교토(ACK)와 상하이의 웨스트 빙드 아트 앤드 디자인(West Bund Art & Design)이 열렸다. 그런데 사실 AWT는 형식적인 걸이 사뭇 다르다. 마켓 플레이스(아트 페어) 브랜드를 정체성으로 삼는 다른 행사들과 달리 현대미술을 필두로 한 도쿄의 다채로운

'도시 브랜드'를 업고 점진적인 성장을 꿰마다 AWT 플랫폼의 시작점은 다케 니나가와(Take Ninagawa)라는 도쿄의 갤러리를 이끄는 니나가와 아쓰코(Atsuko Ninagawa)라는 인물이다. 팬데믹의 강타로 위축을 우려했던 것과 달리 미술 시장이 세계적으로 호조세를 타며 이웃 도시들이 아트 페어 열기로 분주 하던 2021년 봄, 그녀는 도쿄의 갤러리와 미술관을 다니는 버스 노선도를 그리면서 기획에 나섰고,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도시의 아트 신(scene)을 다각도로 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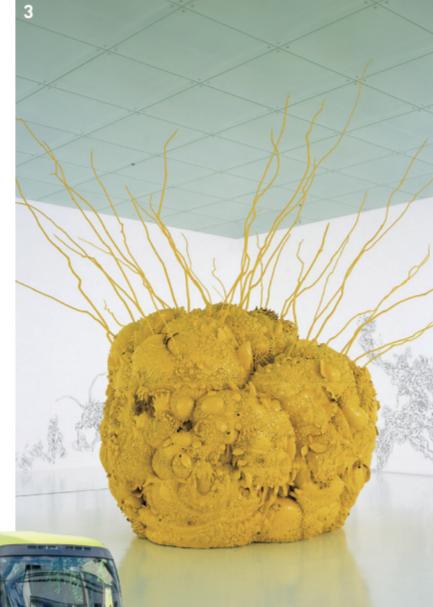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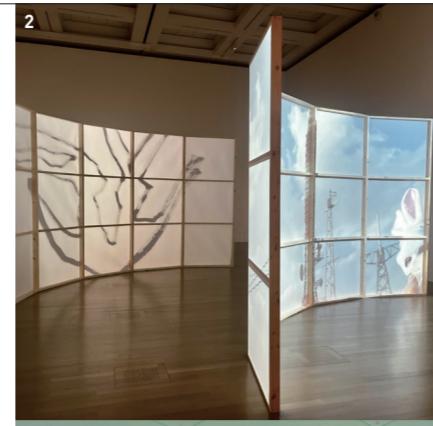
1 AWT 버스, 이미지 제공_AWT

2 도쿄 국립신미술관(NACT)〈Prism of the Real: Making Art in Japan 1989-2010〉전에서 선보인 조간 조나스의 영상 작업 (Double Lunar Rabbits)(2010). 작가 소장.

3 국립신미술관 전시 작품, Noboru Tsubaki, *Aesthetic Pollution*(1990). Photo by Taku Saiki. © Noboru Tsubaki, Courtesy the 21st Century Museum of Contemporary Art, Kanazawa and NACT 4 도쿄 현대미술관(MoT) 개관 30주년 기념전에 전시된 라이스 브루잉 시스터즈 클럽의 '우미, 손, 해파'(2025). 5 모리 미술관에서 선보인 후지모토 소우의 작업 'House N'(2008). 6 MoT에서 개인전을 연 시사모토 아키(Aki Sasamoto)의 작품 'Still from Point Reflection (video)'(2023). © Aki Sasamoto, Courtesy Take Ninagawa and MoT

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살아가는 일본인에게, 그리고 도쿄를 방문하는 타지인에게도 '우리와' 현대미술사를 알리는 교육적인 역할'을 강조했다고 한다(스타일 조선일보 인터뷰). 대중 미술의 지평을 넓히고 일본의 미술 콘텐츠를 해외에 더 활발히 알린다는 취지에 호의적인 점수를 받아 공적 지원(정부와 도쿄 도청을 등)에 업계 됐고, 니나가와 대표는 자신의 오랜 고백이기도 한 40대 컬렉터이자 사업가 사라이 가즈나리(Kazunari Shirai)와의 기부한 AWT 공동 설립자로 '새 판'을 짰다. 그렇게 해서 갤러리와 아트 스페이스, 공공·사립 미술관 등을 아우르는 50여 개 기관과 조직이 해마다 참여하고, 이 공간들을 도시 기행하듯 여러 루트로 오갈 수 있도록 수십 대의 무료 버스가 다니는 아트 위크가 생겨난 것이다.

이 지점에서 자연스레 의문이 들 법하다. 명실공히 아시아를 대표하는 메트로폴리스인 도쿄는 어째서 글로벌 아트 페어라는 형식을 내세우지 않았을까? 답은 간단하다. 니나가와 대표도 직접 말했듯 '사실 도쿄는 다른 주요 도시에 비해 컨템퍼러리 아트 시장이 작은 편'이다. 대중적으로도 잘 알려진 미술계 슈퍼스타들이 분명 존재하지만(무라카미 다카시, 구사마 야오이, 팀랩 등) 자국의 신진·중견 작가들의 작품을 수집하는 컬렉



1 도쿄 시부야의 명소 에비스 가든 플레이스에 자리한 도쿄도 사진미술관(TOP Museum)에서 진행 중인 30주년 기획전 〈Thoughts of a Distant Window〉 전시 모습. 2026년 1월 7일까지.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영화감독 페드루 코스타(Pedro Costa)의 일도 높은 개인전도 이곳에서 진행 중이다(12월 7일까지). 2 AWT 포커스에 출품된 네덜란드 작가 바스 안 아더르(Bas Jan Ader)의 사진 작품 'I'm too sad to tell you'(1971/2024). Gelatin silver print, 41.7×55.9 cm. Courtesy Meliksetian I Briggs 3 AWT 포커스에서 선보인 바스 안 아더르의 또 다른 작품 〈Nightfall〉(1971, 영상) ※ 1, 3 Photo by 고성연

터총의 규모도 일본의 국가 브랜드를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이다. 큰손들이 고가의 인상주의 작품까지 기세 좋게 사들이던 베를 시대를 그리워할 뿐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글로벌 팽창과 다각화를 모색해온 주요 아트 페어 브랜드들이 일찌감치 도쿄에 진출하지 않았을 리 없다. 솔직히 AWT가 탄생한 지 5년이 지난 지금도 구매와 반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미술품 수집은 다른 세상 얘기'로 바라보는 도쿄 시민들과 '침신한 발견'이라고 반색하는 일부 방문객의 운도 차는 여전히 커 보인다. 그래도 초창기만 해도 미술관과 갤러리가 '아트 주간'이라는 개념을 낳설어했던 것과 달리 지금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하는 수요가 부쩍 커진 걸 체감할 수 있다.

하지만 AWT는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점진적으로 질과 다양성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공식적 참여 기관과 조직의 수는 지속적으로 50개 선에서 꾸려가고 있다. 참여 갤러리 명단에는 살짝 변화가 일어나곤 하지만, 도쿄 국립신미술관, 도쿄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공공 미술관, 모리 미술관과 MoT, 아티즌 뮤지엄 등 주요 기관의 목록은 거의 한결같다. 초반부터 자체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세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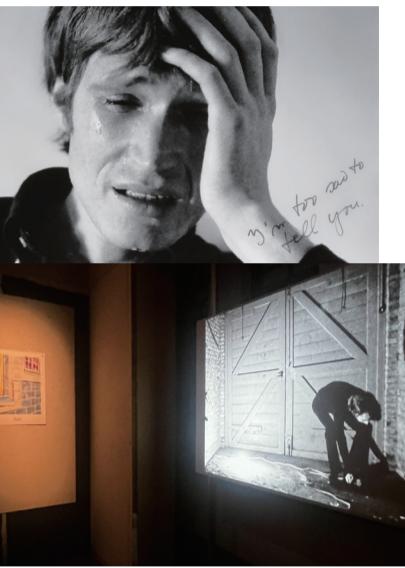
히 기획했고, 그만큼 의도에 맞는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AWT의 의지가 엿보인다. 해외 방문객을 명화한 탓으로 삼아 도쿄의 실력 있는 갤러리들이 자신들의 예술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사실 미술관들은 전시 오프닝 날짜를 AWT에 일부러 맞춘다든지 하는 식으로 애쓰기보다 '느슨한 참여'를 한다). 단지 미술뿐 아니라 건축, 조경, 미술, 쇼핑, 렉서리 호텔 등 영역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하드웨어와 콘텐츠를 풍부하게 반영해주는 도쿄의 장점을 활용해서 말이다. 더구나 마침 엔저 호화 등으로 도쿄, 교토를 위시한 일본 도시를 찾는 이들이 워낙 많지 않은가. 10여 년 전 도쿄에 진출한 갤러리 블럼(BLUM)의 공동 창업자 팀 블럼은 "일본에 대한 새로운 관점, 다시 불러붙은 접착 같은 게 생겨난 것 같다"라는 말을 한 적도 있다.

장점을 부각한 기획력과 하이브리드 전략

'우리에게도 빼어난 콘텐츠가 많은데 방콕에서 서둘렀던 것 같다'는 생각에서 도쿄를 현대미술을 내세운 문화 예술 쇼케이스의 무대로 전격 내세운 AWT의 행보는 지금까지는 주요한 것으로 보인다. AWT에 등록하는 VIP 수자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지난 해 4천여 명), 그중 7~8할이 해외 컬렉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단연 초창기부터 전략적으로 맺은 아트 바젤(Art Basel)과의 협업이 큰 몫을 하고 있다. 키아프(Kiaf)와 손잡고 서울에 입성한 프리즈(Frieze)와 더불어 미술 생태계를 주름잡고 있는 세계 최강 아트 페어 브랜드 아닌가. 그러한 네트워크로 일본을 찾는

갤러리들이 갤러리에 들르면 자감을 여는 건 자국의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도쿄라는 화려한 도시의 위용에 비해 컨템퍼러리 아트 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건 사실이지만, 이는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된다. AWT는 굳이 페어(fair)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2023년부터 'AWT 포커스'라는 세일즈 플랫폼을 기동하고 있다. 아직 규모는 작지만 페어의 속성까지 지닌 하이브리드 플랫폼으로 키워가는 신중하고 영리한 전략이다.

AWT 포커스는 여타 아트 페어와 차별화하는 차원에서



AWT Focus &...



주제가 있는 미술관 전시를 강조하면서 그에 걸맞은 저명한 큐레이터를 동원하고 있다. 첫해에 시기현 미술관장인 호사가 겐지로(Kenjiro Hosaka), 지난해 엔 롯폰기의 성장과도 같은 모리 미술관을 이끄는 가타오카 마미(Mami Kataoka) 관장이 각각 큐레이팅을 맡았는데, 실제로 반응도 좋았다. 그렇더라도 그간 AWT를 꾸준히 지켜봐왔다면, 전시 작가군이나 기획자가 '일본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나올지도 모를 참에, 비중 있는 글로벌 큐레이터를 등장시켰다. 독일 소도시 카셀에서 5년마다 개최되는 현대미술 최고의 권위를 지닌 행사는 2017년에 열렸다. 그간 AWT를 대표하는 60여 명의 작품을 선보였는데, 엄연히 갤러리를 끝 상업 플랫폼임을 잊을 정도로 작은 비엔날레를 연상시키는 구성이 돋보였다. 예를 들어 인상 깊은 작업 세례를 선보였지만 젊은 나이에 실종된 네덜란드의 개념 미술가 바스 안 아더르(Bas Jan Ader)의 대표 작품인 〈Nightfall〉(1971, 영상)과 'I'm too sad to tell you'(1971/2024). 사진작품 〈What is Real?〉이라는 주제를 내세운 전시에서는 다양한 세대와 지역을 대표하는 60여 명의 작품 1백여 점을 선보였는데, 엄연히 갤러리를 끝 상업 플랫폼임을 잊을 정도로 작은 비엔날레를 연상시키는 구성이 돋보였다. 예를 들어 인상 깊은 작업 세례를 선보였지만 젊은 나이에 실종된 네덜란드의 개념 미술가 바스 안 아더르(Bas Jan Ader)의 대표 작품인 〈Nightfall〉(1971, 영상)과 'I'm too sad to tell you'(1971/2024). 사진작품 〈What is Real?〉이라는 주제를 내세운 전시에서는 다양한 세대와 지역을 대표하는 60여 명의 작품 1백여 점을 선보였는데, 엄연히 갤러리를 끝 상업 플랫폼임을 잊을 정도로 작은 비엔날레를 연상시키는 구성이 돋보였다. 예를 들어 인상 깊은 작업 세례를 선보였지만 젊은 나이에 실종된 네덜란드의 개념 미술가 바스 안 아더르(Bas Jan Ader)의 대표 작품인 〈Nightfall〉(1971, 영상)과 'I'm too sad to tell you'(1971/2024). 사진작품 〈What is Real?〉이라는 주제를 내세운 전시에서는 다양한 세대와 지역을 대표하는 60여 명의 작품 1백여 점을 선보였는데, 엄연히 갤러리를 끝 상업 플랫폼임을 잊을 정도로 작은 비엔날레를 연상시키는 구성이 돋보였다. 예를 들어 인상 깊은 작업 세례를 선보였지만 젊은 나이에 실종된 네덜란드의 개념 미술가 바스 안 아더르(Bas Jan Ader)의 대표 작품인 〈Nightfall〉(1971, 영상)과 'I'm too sad to tell you'(1971/2024). 사진작품 〈What is Real?〉이라는 주제를 내세운 전시에서는 다양한 세대와 지역을 대표하는 60여 명의 작품 1백여 점을 선보였는데, 엄연히 갤러리를 끝 상업 플랫폼임을 잊을 정도로 작은 비엔날레를 연상시키는 구성이 돋보였다. 예를 들어 인상 깊은 작업 세례를 선보였지만 젊은 나이에 실종된 네덜란드의 개념 미술가 바스 안 아더르(Bas Jan Ader)의 대표 작품인 〈Nightfall〉(1971, 영상)과 'I'm too sad to tell you'(1971/2024). 사진작품 〈What is Real?〉이라는 주제를 내세운 전시에서는 다양한 세대와 지역을 대표하는 60여 명의 작품 1백여 점을 선보였는데, 엄연히 갤러리를 끝 상업 플랫폼임을 잊을 정도로 작은 비엔날레를 연상시키는 구성이 돋보였다. 예를 들어 인상 깊은 작업 세례를 선보였지만 젊은 나이에 실종된 네덜란드의 개념 미술가 바스 안 아더르(Bas Jan Ader)의 대표 작품인 〈Nightfall〉(1971, 영상)과 'I'm too sad to tell you'(1971/2024). 사진작품 〈What is Real?〉이라는 주제를 내세운 전시에서는 다양한 세대와 지역을 대표하는 60여 명의 작품 1백여 점을 선보였는데, 엄연히 갤러리를 끝 상업 플랫폼임을 잊을 정도로 작은 비엔날레를 연상시키는 구성이 돋보였다. 예를 들어 인상 깊은 작업 세례를 선보였지만 젊은 나이에 실종된 네덜란드의 개념 미술가 바스 안 아더르(Bas Jan Ader)의 대표 작품인 〈Nightfall〉(1971, 영상)과 'I'm too sad to tell you'(1971/2024). 사진작품 〈What is Real?〉이라는 주제를 내세운 전시에서는 다양한 세대와 지역을 대표하는 60여 명의 작품 1백여 점을 선보였는데, 엄연히 갤러리를 끝 상업 플랫폼임을 잊을 정도로 작은 비엔날레를 연상시키는 구성이 돋보였다. 예를 들어 인상 깊은 작업 세례를 선보였지만 젊은 나이에 실종된 네덜란드의 개념 미술가 바스 안 아더르(Bas Jan Ader)의 대표 작품인 〈Nightfall〉(1971, 영상)과 'I'm too sad to tell you'(1971/2024). 사진작품 〈What is Real?〉이라는 주제를 내세운 전시에서는 다양한 세대와 지역을 대표하는 60여 명의 작품 1백여 점을 선보였는데, 엄연히 갤러리를 끝 상업 플랫폼임을 잊을 정도로 작은 비엔날레를 연상시키는 구성이 돋보였다. 예를 들어 인상 깊은 작업 세례를 선보였지만 젊은 나이에 실종된 네덜란드의 개념 미술가 바스 안 아더르(Bas Jan Ader)의 대표 작품인 〈Nightfall〉(1971, 영상)과 'I'm too sad to tell you'(1971/2024). 사진작품 〈What is Real?〉이라는 주제를 내세운 전시에서는 다양한 세대와 지역을 대표하는 60여 명의 작품 1백여 점을 선보였는데, 엄연히 갤러리를 끝 상업 플랫폼임을 잊을 정도로 작은 비엔날레를 연상시키는 구성이 돋보였다. 예를 들어 인상 깊은 작업 세례를 선보였지만 젊은 나이에 실종된 네덜란드의 개념 미술가 바스 안 아더르(Bas Jan Ader)의 대표 작품인 〈Nightfall〉(1971, 영상)과 'I'm too sad to tell you'(1971/2024). 사진작품 〈What is Real?〉이라는 주제를 내세운 전시에서는 다양한 세대와 지역을 대표하는 60여 명의 작품 1백여 점을 선보였는데, 엄연히 갤러리를 끝 상업 플랫폼임을 잊을 정도로 작은 비엔날레를 연상시키는 구성이 돋보였다. 예를 들어 인상 깊은 작업 세례를 선보였지만 젊은 나이에 실종된 네덜란드의 개념 미술가 바스 안 아더르(Bas Jan Ader)의 대표 작품인 〈Nightfall〉(1971, 영상)과 'I'm too sad to tell you'(1971/2024). 사진작품 〈What is Real?〉이라는 주제를 내세운 전시에서는 다양한 세대와 지역을 대표하는 60여 명의 작품 1백여 점을 선보였는데, 엄연히 갤러리를 끝 상업 플랫폼임을 잊을 정도로 작은 비엔날레를 연상시키는 구성이 돋보였다. 예를 들어 인상 깊은 작업 세례를 선보였지만 젊은 나이에 실종된 네덜란드의 개념 미술가 바스 안 아더르(Bas Jan Ader)의 대표 작품인 〈Nightfall〉(1971, 영상)과 'I'm too sad to tell you'(1971/2024). 사진작품 〈What is Real?〉이라는 주제를 내세운 전시에서는 다양한 세대와 지역을 대표하는 60여 명의 작품 1백여 점을 선보였는데, 엄연히 갤러리를 끝 상업 플랫폼임을 잊을 정도로 작은 비엔날레를 연상시키는 구성이 돋보였다. 예를 들어 인상 깊은 작업 세례를 선보였지만 젊은 나이에 실종된 네덜란드의 개념 미술가 바스 안 아더르(Bas Jan Ader)의 대표 작품인 〈Nightfall〉(1971, 영상)과 'I'm too sad to tell you'(1971/2024). 사진작품 〈What is Real?〉이라는 주제를 내세운 전시에서는 다양한 세대와 지역을 대표하는 60여 명의 작품 1백여 점을 선보였는데, 엄연히 갤러리를 끝 상업 플랫폼임을 잊을 정도로 작은 비엔날레를 연상시키는 구성이 돋보였다. 예를 들어 인상 깊은 작업 세례를 선보였지만 젊은 나이에 실종된 네덜란드의 개념 미술가 바스 안 아더르(Bas Jan Ader)의 대표 작품인 〈Nightfall〉(1971, 영상)과 'I'm too sad to tell you'(1971/2024). 사진작품 〈What is Real?〉이라는 주제를 내세운 전시에서는 다양한 세대와 지역을 대표하는 60여 명의 작품 1백여 점을 선보였는데, 엄연히 갤러리를 끝 상업 플랫폼임을 잊을 정도로 작은 비엔날레를 연상시키는 구성이 돋보였다. 예를 들어 인상 깊은 작업 세례를 선보였지만 젊은 나이에 실종된 네덜란드의 개념 미술가 바스 안 아더르(Bas Jan Ader)의 대표 작품인 〈Nightfall〉(1971, 영상)과 'I'm too sad to tell you'(1971/2024). 사진작품 〈What is Real?〉이라는 주제를 내세운 전시에서는 다양한 세대와 지역을 대표하는 60여 명의 작품 1백여 점을 선보였는데, 엄연히 갤러리를 끝 상업 플랫폼임을 잊을 정도로 작은 비엔날레를 연상시키는 구성이 돋보였다. 예를 들어 인상 깊은 작업 세례를 선보였지만 젊은 나이에 실종된 네덜란드의 개념 미술가 바스 안 아더르(Bas Jan Ader)의 대표 작품인 〈Nightfall〉(1971, 영상)과 'I'm too sad to tell you'(1971/2024). 사진작품 〈What is Real?〉이라는 주제를 내세운 전시에서는 다양한 세대와 지역을 대표하는 60여 명의 작품 1백여 점을 선보였는데, 엄연히 갤러리를 끝 상업 플랫폼임을 잊을 정도로 작은 비엔날레를 연상시키는 구성이 돋보였다. 예를 들어 인상 깊은 작업 세례를 선보였지만 젊은 나이에 실종된 네덜란드의 개념 미술가 바스 안 아더르(Bas Jan Ader)의 대표 작품인 〈Nightfall〉(1971, 영상)과 'I'm too sad to tell you'(1971/2024). 사진작품 〈What is Real?〉이라는 주제를 내세운 전시에서는 다양한 세대와 지역을 대표하는 60여 명의 작품 1백여 점을 선보였는데, 엄연히 갤러리를 끝 상업 플랫폼



Luxury Meets Arts

도쿄의 저력을 보여주는 브랜드들의 예술 공간

호텔, 디자인, F&B, 패션 등의 영역을 가리지 않고 럭셔리 브랜드들이 접觸한 도시인 도쿄에서 아트 마케팅이 활발히 펼쳐지는 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지만 AWT가 공공 차원의 '돈' 면에 하마' 같은 비즈니스 모델로 흘러가지 않고 자체 브랜드로서 커가고 있는 데는 브랜드들의 지원도 큰 역할을 한다. 일단 공식 호텔 파트너인 더 오쿠라 도쿄(The Okura Tokyo)는 정재계 인사들이 둑어온 유서 깊은 일본 럭셔리 호텔 브랜드로 2019년 새 단장해 문을 열었는데, 팬데믹이 수그러든 아래 레노베이션 효과까지 톡톡히 누리고 있다. 공식 파트너인 만큼 AWT를 찾는 관람객 중 상당수는 이곳에 묵는 건 물론이고, 이 호텔 부지 내에 있는, 1917년 설립된 일본 최초의 사립 미술관 오쿠라 미술관은 줄곧 AWT 포커스의 무대로 활용되고 있다. 장외 행사를 보자면 예르에스, 루이 비통, 샤넬, 프라다, 시세이도 등 예술 후원과 마케팅에 두각을 나타내온 브랜드들의 매장 디자인과 부속 전시 공간을 둘러보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긴자에 있는 예종 에르메스 옆에 별도 입구로 들어가도록 동선을 짠 르 포르(Le Forum)은 복층으로 된 아름다운 전시 공간인데, AWT 주간은 물론 현재까지도 음악, 필름, 조각을 매개로 금속의 다면적 본질을 다룬 엘로디 르수르(Élodie Lesour), 엔도 마이코(Maiko Endo), 에노키 츠(Chu Enoki) 3인전 《Metal》을 선보이고 있다(2026년 1월 31일까지). 긴자에서는 지난해 문을 연 샤넬 매장 건물에 자리한 '샤넬 네서스' 홀에서 AI와 예술, 생태학을 결합한 전시 《Synthetic Natures》가 진행 중인데, 리스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 소피아 크레스포(Sofia Crespo)와 아티스트 두오인 인탱글드 어더스(Entangled Others)가 참여했다. 오는 12월 7일까지.

※ 1~6 Photo by 고성연

1, 2 도쿄의 변화가 긴자에 있는 예종 에르메스의 현대미술 전시 공간인 '르 포르(Le Forum)'에서는 음악, 필름, 조각을 매개로 금속의 다면적 본질을 다룬 《Metal》을 선보이고 있다. 엘로디 르수르(Élodie Lesour), 엔도 마이코(Maiko Endo), 에노키 츠(Chu Enoki) 3인 전시 2026년 1월 31일까지. 3, 4 긴자의 샤넬 매장 건물에 자리한 '샤넬 네서스' 홀에서 진행 중인 전시 《Synthetic Natures》의 설치 모습. AI와 예술, 생태학을 결합한 전시로 리스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 소피아 크레스포(Sofia Crespo)와 아티스트 두오인 인탱글드 어더스(Entangled Others)가 참여했다. 오는 12월 7일까지.

5, 6 오모테산도에 있는 루이 비통 매장에 자리한 전시 공간 '에스파스 루이 비통 도쿄에서는 앤디 워홀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 2026년 2월 15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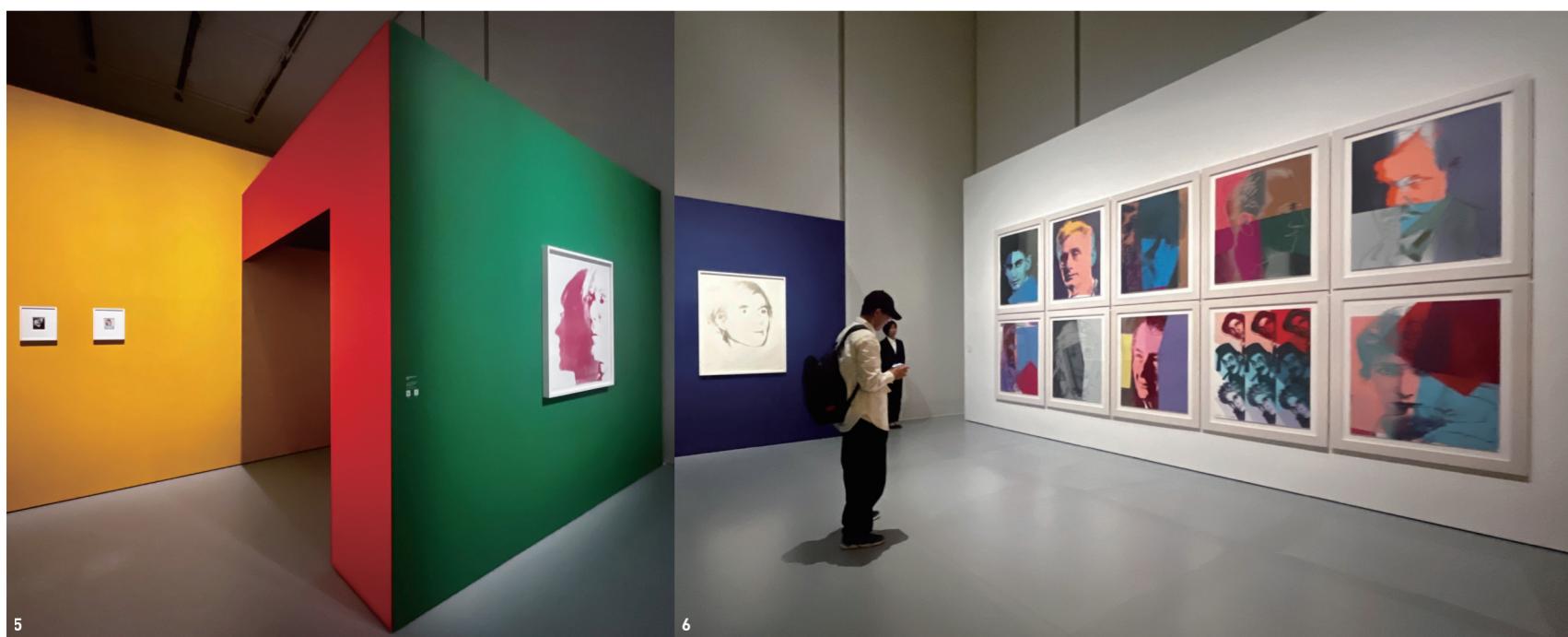
※ 1~6 Photo by 고성연

스(Entangled Others)가 참여했다(12월 7일까지). 또 명품 브랜드들의 건축과 디자인을 보는 즐거움이 넘치는 아오야마에 가면 스위스 건축 회사 HdM의 명작으로 꼽히는 프랑스 아오야마, 아트 바젤 등 글로벌 현대 미술 행사를 후원해온 삼페인 브랜드 루이나 등의 전시 공간과 매장을 함께 둘러볼 수 있고, 가까이에는 루이 비통 오모테산도 매장 건물 7층에 자리한 전시 공간 《Espace Louis Vuitton》도 있다. 서울에서는 카페로 바뀐 '에스파스 루이 비통'이 도쿄에는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는데, 현재는 앤디 워홀 전시가 열리고 있다(내년 2월 15일까지).

폭발적인 역동성으로 치고 나가는 서울 스타일과 달리 일본 특유의 조심스럽고 차근차근한 확장형 행보는 AWT가 갤러리들의 점진적 악진과 더불어 큐레이터의 '브랜드 파워'와 '내공'의 조화를 품은 부티크 페어를 중심으로 여울어기기 시작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단지 컬렉터 숫자가 아니라 문화의 여려 영역에 걸친 다중적 포용력이라는 맥락에서 점재 수요가 꿈틀거리던 도시가 치밀한 글로벌 플랫폼 기획과 만날 때 어떤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또 기타오카 마미(Mami Kataoka) 모리 미술관 관장이 아트 바젤 홍콩의 대규모 설치 작품을 선보이는 주요 석선인 '인카운터스(Encounters)'를 이끌게 됐다는 소식이 얼마 전 들려왔듯, 플랫폼 간의 협업 구도가 향후에 어떤 식으로 심화되고 외연적으로 확장될지도 궁금하게 만든다. 아직은 하이브리드적 정체성의 제약 내지는 가능성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말이다. AWT는 과연 문화도시의 요건인 '자발적 예술의 장'의 면모를 뿐만 아니라 변곡점까지 일궈낼 수 있을까?

글 고성연/도쿄 현지 취재

※ 1~6 Photo by 고성연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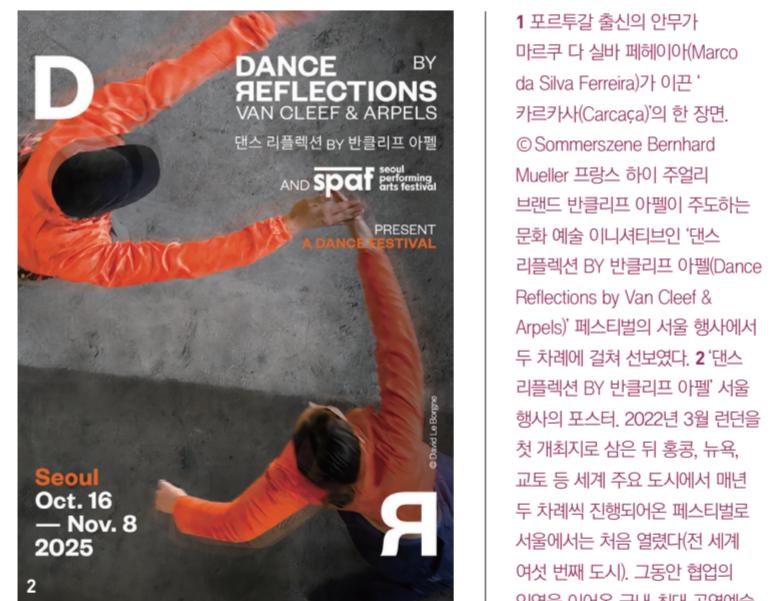
6



Brands & Artketing_12 댄스 리플렉션 BY 반클리프 아펠_서울 편

해방의 몸짓이 '무위의 미학'으로

반클리프 아펠은 뜻 브랜드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탁월한 스토리텔링의 원천을 뽐낸다. '벨 에포크'로 불리는 찬란한 문화 예술 황금기에, 프랑스 보석 가문 자제들의 낭만 어린 러브 스토리에서 비롯된 시초(1906년)부터 남달랐다. 게다가 창조적 영감을 다른 영역에서 발산하는 역량도 빼어난데, 여기엔 현대무용의 영역을 넓히는 브랜드 차원의 축제형 플랫폼도 큰 지분을 차지한다. 지구촌 곳곳에서 다채로운 무용의 세계를 선보여온 '댄스 리플렉션 BY 반클리프 아펠' 페스티벌이다. 지난가을 드디어 서울로도 찾아온 이 역동적인 축제의 끝자락에 전체 프로그램을 이끄는 세르주 로랑 디렉터를 만나봤다.



우리가 공연예술이 펼쳐지는 동시대의 극장을 찾는 이유는 교양을 쌓으려는 게 아니라 '충격'을 받기 위해서라고 했던가. '댄스 리플렉션 BY 반클리프 아펠(Dance Reflections by Van Cleef & Arpels)' 프로그램과 처음 만난 작년 가을의 공연 사람들(Crowd)은 분명 좋은 의미의 '자극'으로 다가왔다. 몽환적인 일렉트로닉 음악을 배경으로 몸의 근막을 활용하는 댄서들의 세밀하고 절제된 움직임이 자아낸 극도의 몸입! 그 신선한 감동은 올가을 서울을 무대로 3주(10. 16~11. 8)에 걸쳐 이어진 댄스 리플렉션 페스티벌의 흥미로운 라인업을 대부분 소화해보자는 결심으로 이끌었다.

무용수들이 빛나는 '몸의 언어'가 리듬을 타고 무대의 음향, 그리고 그네들의 호흡과 함께 공명하는 순간은 마치 다른 시공간으로 이동한 듯하다. 묘한 해방감을 선사하는 그들의 몸짓을 온 감각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느새 의도나 목적 없이 펼쳐지는 '무위의 미학'을 맞닥뜨리게 되기도 한다. "우아함과 아름다움의 장소는 의식적 노력의 바깥에 있다"는 말에 제대로 공감할 수 있는 고마운 경험이다. 서울의 기울을 수놓은 9팀이 선사한 무용의 파노라마는 저마다의 방식과 결이 매우 다르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기승전결을 지난 매혹적인 작품 같다'는 점도 흥미로웠다. 예를 들어 첫 주의 공식 개막작 '룸 위드 어 뷔(Room with a View)'는 날카롭게 울부짖는 기계음에 둘러싸인 채석장을 배경으로 23명의 마르세유 국립발레단 무용수들이 마치 혁명의 전사처럼 강렬하게 춤사위를 벌이는 스펙터클을

을 선사했는데, 다음 공연은 서양 무용계의 전설적인 인물인 로이 폴러의 서펜타인 댄스에서 영감받아 대나무 막대를 인으로 짊어넣어 길게 연결한 실크 천을 활용한 독특한 독무 '로이 폴러: 리서치' 안무가 유타 마시에 에프스카와 무릎을 구부린 채 빙글빙글 도는 이탈리아 믹스 무용인 폴라 친나를 게승한 듯한 춤 '마지막 춤은 나를 위해' 안무가 알레산드로 시아르로로니였다.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 단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고 발랄임을 이어가며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안 마르텐스의 '도그 데이즈 오버 2.0'과 뮤지컬처럼 경쾌한 춤과 노래가 흥을 돋우는 로빈 올린의 '바퀴를 두른 사람들'과 거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줄루족을 말처럼 인력기로 부렸던 슬픈 서사와 저항의 미학을 품은 작품이다)의 대조적인 느낌도 인상적이었다. 여기에 저항의 메시지를 표현해낸 '카르카사', 피날레 공연다면 전율과 오락을 선사한 '900' 면칠, 20세기의 기억까지.

모든 요소가 무대 위에서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마침 안무가 조지 빌란신이 창조적 언대로 발레 작품 '주얼스(Jewels)'를 창작했을 정도로(1967년 초연) 무용과 깊은 인연을 지닌 브랜드인 만큼 세계 유수의 안무가들, 그리고 댄서들과 함께 동시대의 다면성을 반영하는 '댄스 플랫폼'을 만드는 일은 그에게 반기운 도전이었다. "2개의 다른 세계관 속에서 중재자(mediator)로서의 제 역할을 발견하고 흥미롭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행사를' 맡는 것이 아니라, 무용이라는 예술 장르 자체를 지원하고, 그 예술에서 영감을 얻고자 합니다. 저는 예술 작품이 관객과 연결될 때 비로소 완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댄스 리플렉션은 좋았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방식이니까. 제가 하는 일의 본질은 '공유입니다'."

2022년 영국 런던을 시작으로 여려 도시에서 펼쳐져온 댄스 리플렉션 페스티벌의 글로벌 스펙트럼 덕분에 그는 '어제는 파리, 오늘은 서울, 그다음엔 뉴욕으로 가는 일정을 소화한다. 이 축제에 동참한 댄스 컴퍼니들 역시 '느슨한 연대'를 통해 지구촌을 누빈다. 올해 처음으로 서울에서 치러진 행사에서 지구온난화에 반대하는 선언문을 담은 '도시라는 작품'을 선보인 허프로젝트(안무가 하성임)도 그 예정에 첫발을 내디뎠다. '위하여'라는 목적과 효용으로부터의 해방은 인간의 실존에 축제성과 친환경을 부여한다고 했다(조르조 아강 벤). 댄스 리플렉션의 향후 여정도 그렇게 빛나는 축제로 진화해기기를 기대한다. 글 고성연



4

Magic of Diversity

1968년 탄생한 후부터 수십 년 동안 행운을 상징해온 반클리프 아펠(Van Cleef & Arpels)의 알함브라(Alhambra) 컬렉션.

이번에는 변형 가능한 롱 네크리스와 리버서블 링을 출시하며 또 한번 행운의 아이콘으로서 위치를 공고히 한다.

PHOTOGRAPHED BY PARK JAEYONG



반클리프 아펠 매직 알함브라 트랜스포머블
롱 네크리스 기요세 화이트 골드와
블루 컬러가 감도는 칼세도니, 무지갯빛
광채의 화이트 메더오브펄로 이뤄진 네 임
클로버 모티브가 교차하는 롱 네크리스.
단독 혹은 더블로 연출 가능합니다.
15 모티브로 이뤄진 롱 네크리스,
11 모티브로 이뤄진 롱 네크리스,
4 모티브로 이뤄진 브레이슬릿까지,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왼쪽부터) 반클리프 아펠 매직 알함브라
트랜스포머블 롱 네크리스 4 모티브
브레이슬릿 기요세 화이트 골드와 블루
컬러가 감도는 칼세도니, 무지갯빛 광채의
화이트 메더오브펄로 이뤄진 네 임
클로버 모티브가 교차하는 롱 네크리스가
단독 혹은 더블로 연출 가능합니다.
4 모티브 브레이슬릿으로 변신했다.
스위트 알함브라 워치 블루 칼세도니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모티브 각 3개와
기요세 화이트 골드 모티브 3개 중
하나를 워치로 완성해 우아함을 자랑한다.



반클리프 아펠 빈티지 알함브라
리버서블 링 (위) 한쪽은 그레이
머더오브펄, 뒤집으면 기요세 로즈
골드, 두 가지 방식으로 착용 가능한
리버서블 링. (아래) 한쪽은 기요세
화이트 골드, 뒤집으면 칼세도니
원석으로 착용 가능한 리버서블 링.



반클리프 아펠 매직 알함브라
트랜스포머블 롱 네크리스
기존 알함브라 네크리스와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롱 네크리스
단독 혹은 더블로 연출 가능한
15 모티브, 11 모티브 롱 네크리스 및
4 모티브 브레이슬릿으로 연출 가능한
네크리스, 기요세 로즈 골드와 그레이
머더오브펄, 화이트 머더오브펄을
매치했다. 문의 1877-4128
에디터 성경민

(위부터 차례대로) 티파니 노트 더블 로우 힌지드 뱅글 결속을 상징하는 다이아몬드 장식의 리본 매듭을 기준으로 2개의 로즈 골드 원형 모티브가 독특하게 이어진 디자인이 특징이다. 가격 미정. 문의 1670-1837 불가리 피오레버 이어링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드롭 스타일이며, 47개의 꽃잎은 영원과 사랑의 약속을 의미한다. 63만50만원. 문의 02-6105-2120 다미아니 마르케리타 링 엘로 골드에 다이아몬드와 엘로 시트린으로 장식해 데이지 꽃을 구현했으며, 깊은 우정과 순수한 사랑, 진실을 상징한다. 가격 미정. 02-515-1924 포멜리토 투게더 초커 네크리스 컬렉션에서도 알 수 있듯 사람 간의 화합과 유대감을 표현했다. 견고한 듯 부드러운 로즈 골드 소재의 초커 디자인은 다양한 스타일과 상황에 맞게 연출할 수 있다. 가격 미정. 문의 0030-8321-0441 그라프 키스 컬렉션 라운드 파베 다이아몬드 펜던트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2개의 라인을 교차시켜 사랑을 뜻하는 키스 모티브 디자인을 완성했다. 8백35만원. 문의 02-2150-2320 샤넬 파인 주얼리 코코 크레쉬 스몰 & 라지 링 특별한 만남을 기념하는 의미가 담긴 컬렉션으로 스몰 링은 영은 커플링 디테일의 엘로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풀 파베 세팅했으며, 라지 사이즈는 볼드한 엘로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구조적으로 배치했다. 모두 가격 미정. 문의 080-805-9628 에디터 김하얀



Love Signals

수려한 디자인은 물론 그 속에 담긴 사랑, 인연, 우정, 연결 등 변치 않는 마음과 영원성 역시 아름다운 로맨틱 주얼리.

PHOTOGRAPHED BY PARK JAE YOUNG

아이스틴트 김보민



매년 부쉐론이 선보이는 까르뜨 블랑슈(Carte Blanche) 컬렉션은 메종의 창의적 도전을 반영한 창작품으로 타 주얼리 메종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개념의 하이 주얼리를 탄생시킨다. 이 까르뜨 블랑슈 컬렉션은 이끄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클레어 수원(Claire Choisne)은 올 7월 새로운 컬렉션인 '임퍼마너스(Impermanence)'를 공개하며 자연에 대한 개인적 해석과 창의성에 대한 도전을 담은 새로운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소개했다. 그리고 지난 10월 21일, 드디어 이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공개하는 행사를 한국에서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글로벌 앤솔러리 배우 한소희와 프렌즈 오브 메종 NCT 마크가 참석해 멋진 프레젠테이션 및 전시로 많은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임퍼마너스'는 일본 고유의 심오한 미학이자 철학인 '와비사비(Wabi-sabi, 侘寂)'와 일본 특유의 꽃꽂이 예술인 '이케바나(Ikebana, 生け花)'에서 영감받아 탄생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클레어 수원은 일본의 이케바나 장인이 된 듯 식물 대신 아름다운 소재와 일석을 활용해 여섯 가지 식물 조형물을 완성했다. 이 여섯 작품을 관통하는 또 다른 주제는 바로 '빛'. 컬렉션은 가장 밝은 '컴포지션 N°6'부터 '컴포지션 N°1'으로 가면서 점차 어두워진다. 이는 자연이 점차 소멸해가는 모습을 재현한 것이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은 작품처럼 보이는 조형물이 분리되어 다채롭게 착용 가능한 주얼리로 변신한다는 것이다. 즉 하나의 작품을 분리하면 이어링, 네크리스, 브로치 등으로 착용 가능한 주얼리가 되는 것. 6개의 작품에서 무려 28점의 착용 가능한 하이 주얼리를 만나볼 수 있다. 이 디테일한 공정을 위해 부쉐론은 아틀리에에서 1만8천 시간을 할애했다. 그만큼 이 작품은 진정한 라일리티를 담고 있다. '컴포지션 N°4'를 예로 들면, 시클라멘, 귀리 줄기, 애벌레와 나비 모티브로 구성된 이 작품은 무려 7개에 달하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로즈 컷 다이아몬드를 화이트 골드 시클라멘 꽃잎 모티브에 정교하게 배치

1 부쉐론 임퍼마너스 컬렉션. 왼쪽부터 차례대로 컴포지션 N°6~N°1.
2 빛이 사라지는 듯한 시각적 효과를 더한 컴포지션 N°1. 양귀비, 스위트피, 나비가 검은 모래 화병에 꽂혀 있다.
3 헤드밴드 또는 브로치로 착용 가능한 양귀비와 다양한 브로치 형태로 착용 가능한 스위트피. 4 자석 구조를 활용한 나비 솔더 브로치. 5 컴포지션 N°4. 시클라멘, 귀리, 애벌레, 나비를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6 회전 구조의 브로치 또는 브레이슬릿. 7 봇에 사용하는 섬유를 이용해 사실적으로 재현한 화이트 골드 애벌레 브로치.
8 컴포지션 N°5의 양귀비 더블 팽가링과 컴포지션 N°1의 나비 솔더 브로치를 착용한 배우 한소희. 9 컴포지션 N°5의 정수풍뎅이 브로치를 착용한 NCT 마크.

해,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스테인드글라스를 연상시킨다. 애벌레의 잔잔한 털은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봇의 소재인 섬유를 이용해 사실적으로 재현했다. 이 디테일한 묘사를 위해 새로운 기술에 기초 부쉐론 아틀리에 장인들의 세팅 노하우를 결합한 신기술을 접목하기도 했는데, '컴포지션 N°3'에서는 레진을 활용한 3D 프린팅으로 구현한 큰 암술에 블랙 스피넬을 세팅한 작은 봉오리를 매치해 서로 다른 재료의 대비를 보여주기도 했다. 자연의 생명이 까지는 듯 빛이 사라지는 것을 표현한 '컴포지션 N°1'은 혁신적인 반타블랙(Vantablack®) 소재를 코팅해 완성했다. 이 소재는 빛을 99.965% 흡수해 '무로' 사라지는 듯한 극적인 시각 효과를 선사한다.

한국에서 진행된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임퍼마너스 컬렉션에 담긴 의미를 시각적으로 잘 전달하고자 칠혹 같은 어둠 속에 여섯 가지 작품을 순서대로 전열했으며, 빛과 어둠의 전환을 시각적으로 드러내 자연이 사



Eternal Light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한 장인 정신과 하이 주얼리 노하우를 통해 남다른 스타일의 주얼리, 워치메이킹을 선도하는 프렌치 하이 주얼리 메종 부쉐론. 2025년 새로운 주얼리 컬렉션 '임퍼마너스(Impermanence)'로 또 한번 그들만의 자유롭고 대담한 하이 주얼리를 선보인다.

(위부터) 18K 베이지 골드 소재의
코코 크라쉬 네크리스, 18K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꼬메뜨
링, 베이지 골드 소재의 코코 크라쉬
미니 브레이슬릿,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풀 파베 세팅해 완성한
코코 크라쉬 브레이슬릿, 18K
베이지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코코 크라쉬 미니 브레이슬릿.



The Dreamer

매년 설레는 홀리데이에 찾아오는 샤넬 위치 & 파인 주얼리 드림.



1



2



3

1 (위부터) 18K 베이지 골드의 숫자 5 모티브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N5 네크리스, 18K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와 진주를 세팅한 꼬메뜨 링.

2 (위부터) 18K 베이지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이뤄진 코코 크라쉬 스몰 링, 18K 베이지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이뤄진 코코 크라쉬
미니 링, 베이지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완성한 N5 네크리스, 베이지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N5 브레이슬릿.

3 (위부터) 베이지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코코 크라쉬 스몰 링, 18K 베이지
골드의 코코 크라쉬 미니 브레이슬릿, 베이지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코코 크라쉬
미니 브레이슬릿, 18K 엘로 골드와 블랙
네오프라이트 제이드, 다이아몬드로 이뤄진
리버서블 디자인의 상스 드 샤넬 메달, 18K 엘로
골드에 블랙 가죽과 블랙 레더 다이얼을 매치한
프리미어 아이코닉 제인 더블 로우 워치.



18K 엘로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이뤄진 상스 드 샤넬 메달, 엘로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완성한 N°5 네크리스,

(위부터) 샤넬만의 캔팅 모티브를 더한 18K 베이지 골드 소재 코코 크리쉬 투프 이어링, 베이지 골드 코코 크리쉬 스몰 링, 18K 베이지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코코 크리쉬 미니 링, 18K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센터 다이아몬드를 배치한 코코 크리쉬 네크리스, 건고한 블랙 세라믹과 18K 엘로 골드 케이스로 이뤄진 J12 워치 칼리버 12.1, 38MM 모두 샤넬 워치 & 파인 주얼리, 문의 080-805-9628
에디터 성정민



HOLIDAY WISHES



한 해의 끝, 김사와 사랑을 듬뿍 담아 어느 때보다 다채롭고 황홀한 홀리데이 선물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UNG, CHOI MIN YOUNG

(왼쪽부터 차례대로)
컬티드 패턴의 옐로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코코 크러쉬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샤플 파인 주얼리 080-805-
9628.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수놓은 핑크 골드 러브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깨끗띠에 1877-4326.
정육면체를 모던하게 담은 화이트
골드 소재 아이스 큐브 뱅글
9백2만원 쇼파드 02-6905-3390.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아홉
송이의 데이지 꽃을 표현한 마르케트타
네크리스 가격 미정 다미아니
02-515-1924. 총 141개로 이루어진 리본의
곡선 세이프를 우아하게 완성한 틸다의
보우 라운드 다이아몬드 네크리스 가격
미정 그라프 0030-8321-0441. 파베
세팅 다이아몬드를 둘러싼 골드 비즈
장식이 색다른 멋을 선사하는 빠를리 링
가격 미정 반클리프 아펠 1877-4128.



독일 위치메이킹 탄생 180주년을 기념해
도자기 브랜드 마이센 포슬린과의
협업으로 완성한 리미티드 에디션.
청자를 연상시키는 약 40mm의 그린
셀라돈(Celadon) 디아일에 18세기
로코코 장식에서 유래한 잎사귀 모양을
수놓아 동서양의 미를 고루 느낄 수
있다. 모든 피스를 수작업으로 제작해
다이얼 디테일이 미묘하게 다른 점도 관점
포인트인 세나토 마이센 워치 3천8백만원
글라슈테 오리지널 02-3467-6426.



화이트 포슬린 디아일에 동서양의 미를 담은 미스틱 메종을 적용하고 로마숫자와 6시 방향의 검을 형상화한 인덱스, 블랙 레더 스트랩의 조화가 인상적이며, 세컨드 스톱 기능을 통해 시간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고, 1백 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하는 인하우스 자동 칼리버 36-16을 탑재했다. 전 세계 1백50점 한정 마이센 워치 3천8백만원 글라슈테 오리지널 02-3467-6426.

직경 33mm 골드 케이스에
자개 다이얼을 장착하고, 그 주변을
라운드 브렐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각각 4개의 토파즈와 턴자나이트를
교차 세팅해 화려함을 배가한
디비스 드림 위치 5천8백40만원
불가리 02-6105-2120.



터퀴즈 래커 다이얼에 다이아몬드
장식의 베젤과 크리운을 더하고,
까나주 패턴이 돋보이는 옐로 골드
브레이슬릿을 장착한 라 미니
디 마이 디올 위치 가격 미정
디올 타임피스 02-3280-0104.



직경 30mm 골드 케이스와
그린 다이얼에 다이아몬드
인덱스와 베젤, 6시 방향의
날짜창을 더해 포인트 위치로
손색없는 시마스터 5천9백만원대
오메가 02-3479-6025.



기요세 블루 다이얼, 직사각형
케이스의 상단과 하단에 자리한
다이아몬드 장식, 유광 블루
알리가이터 스트랩이 조화를
이루는 라베르소 클래식 뷰에도
미디엄 위치 가격 미정
에거 르클르트 02-6905-3998.



인덱스를 과감히 생략한 뒤 다이아몬드와
자개, 사파이어로 표현한 태양과 달,
범하늘로 대신해 브랜드 고유의 기술력과
예술성을 엿볼 수 있는 레이디 아펠
쥬 니 위치 가격 미정 만클러프 아펠
1877-4128. 직경 34.9mm 케이스에
자개 다이얼과 블루 로마숫자를 세팅하고,
70개의 다이아몬드를 베젤에 촘촘하게
장식해 영롱함을 강조한 레이디아드
컬러즈 문페이즈 미드나잇 블루
5천2백46만원 블랑팡 02-3479-1833.



독특한 절개 디자인으로 간결한
조형미를 전하는 사이니 카프 스킨
소재 스몰 퍼즐 팬다 백 4백90만원,
미동한 시아링 소재로 귀여운
오리너구리를 구현한 플래티파스 백
2백90만원, 애니그램 자카드 패턴을
수놓은 올 혼방 소재 스카프 79만원,
탈착 가능한 고양이 참이 특징인 밸레
러너 2.0 루이스 웨인 스니커즈
1백40만원 모두 [로에베 02-3479-1785](#).



가방 실루엣을 변형할 수 있으며 숄더백, 크로스 백 등 다양하게 연출 가능한 카프 스킨 소재 해먹 플립 백 4백80만원, 영국 미술가 루이스 웨인(Louis Wain)의 작품에서 영감받은 고양이 패턴의 플라멩코 클러치 캔 미디엄 백 4백40만원, 포근한 김족의 헤어리 카프 스킨 소재를 사용해 보온성을 높인 밸레 러너 2.0 LNY 스니커즈 1백70만원 모두 [로에베 02-3479-1785](#).

고트 벨벳 소재의 라이트
발레리나 플랫 슈즈 4백63만원
에르메스 02-542-6622.



반짝이는 크리스탈 스톤을
세팅해 연말 파티 룩으로 제격인
스트랩 힐 1백71만원 **발렌티노**
가라바니 02-2015-4655.



신뜻한 핑크 컬러, 굵은 메탈
체인과 볼이 시선을 사로잡는
뽀띠 살 누아르 미니 베킷 백 가격
미정 **프라다** 02-3442-1831.



빛을 반사하는 메탈릭 실버 컬러와
모노그램 패턴이 미래적인 느낌을
자아내는 알마 BB 백 가격 미정
루이 비통 02-3432-1854.



관능적인 레오파드 프린트 파우치 백
가격 미정 **미우미우** 02-541-7443.
블랙 톱 핸들을 분리하면 클러치 또는
숄더백으로 활용 가능한 미노모르프
미니 백 6백30만원 **발렌티노** 가라바니
02-2015-4655. 손끝에 더블 C 로고를
섬세하게 담은 헤스킨 소재 글러브
가격 미정 **샤넬** 080-805-9628.





(위부터 차례대로) 스퀘어 토와 구조적 세이프의 굽,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의 조화가 남다른 나파 가죽 소재 앵클부츠 1백28만원 베네비타 보풀리 문의 02-3479-6047. 비정형적인 굽과 절개 라인이 돋보이는 토이 펀타 앵클 부티 가격 미정 로에베 문의 02-3479-1785. 버클 디테일의 스웨이드 소재 도넬리 부티 가격 미정 랄프 로렌 문의 02-3467-6560. 발목 라인부터 발등까지 이어지는 섬세한 주름 디테일이 우아한 실크 소재 쇼트 부츠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5-9628. 고무 폐플 디테일의 아웃솔로 편안함을 선사하는 키프 스키н 소재 앵클부츠 2백33만원 토즈 02-3438-6008 에디터 김하얀

온 세상이 반짝이는 연말, 무한히 다양하고 화려해진 뷰티템을 만나볼 차례다. 지금이 아니면 구할 수 없는 특별 에디션이라 더욱 가슴 설레는 홀리데이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UNG





나스 2025 대즐링 홀리데이 컬렉션
익스플리시트 립스틱 #블레이밍 라벤더 컬러
홀로그램 패키지로 출시한 홀리데이
에디션으로, 부드럽게 발리는 누디한 로즈
핑크 컬러, 3.8g 5만2천원대.
문의 080-564-7700 by 에디터 신정임

Editor's Pick

깊은 보습 효과의 보디 케어부터 포근한 향의 홈 프레이그런스,
홀리데이 무드를 북돋는 립 & 아이섀도까지. 12월 뷰티 서랍장을
채워줄 셀렉션. PHOTOGRAPHED BY YOON JIYOUNG

HAND CREAM



록시땅 뉴 페스티브 샤워 오일
오일 성분을 함유해 보습력과
세정력 모두 갖춘 보디 클렌저.
블랙 커터와 달콤한 바닐라의
전향이 오래가 따로 향수가 필요
없을 정도. 250ml 3만6천원.
문의 02-2054-0500
by 에디터 김하얀

바이레도 핸드크림
로즈 오브 노 맨즈
랜드 시그너처 향을
담은 핸드크림. 노르딕
무드의 연말 분위기
패키지로 텔바꿈해
특별함을 더한다.
30ml 5만1천원.
문의 1533-7305
by 에디터 성정민



산타마리아노벨라 타비코 토스카노 오 드 코롱
묵직한 타비코 향이 앰버, 시더우드와 샌들우드로
농밀하게 퍼져 진한 여운을 남긴다. 색다른 향을
좋아한다면 강력 추천. 100ml 21만원.
문의 1644-4490 by 에디터 김하얀

상테카이 아이 루미에르 리퀴드 아이섀도우 #크레망 리퀴드 타입
아이섀도. 높은 유효력을 자랑하는 것은 물론 메탈릭 피니시의 루미너스
로즈 컬러로 아이 메이크업에 포인트를 주기 좋아 자주 순이 간다.
4ml 7만6천원대. 문의 070-4370-7511 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BATH TIME

로라 메르시에 허니 배쓰 하루의
피로를 녹여주는 달달한 향의 배스로,
샤워 후 보습감이 오래 지속된다. 미니
허니 디포로 손쉽게 양을 조절할 수
있다. 250ml 10만9천원.
문의 1644-4490 by 에디터 신정임

성정민(30대 민경희), 김하얀(30대 건설), 산정임(20대 복합성), 김보민(20대 자·복합성)

조 말론 런던 오렌지 비터스
디퓨저 부드러운 샌들우드
베이스에 달콤한 오렌지와
쌈싸름한 비터 오렌지 조합의
디퓨저로 포근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165ml 16만8천원대.
문의 1644-3753
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스위스파렉션 에센셜
비타민 크림 바르자마다
비타민의 향산화
효과가 느껴지는 듯,
지친 피부의 활기를
되찾고 싶을 때 추천한다.
30ml 29만8천원대.
문의 1644-4490
by 에디터 성정민



5

Editor's Cho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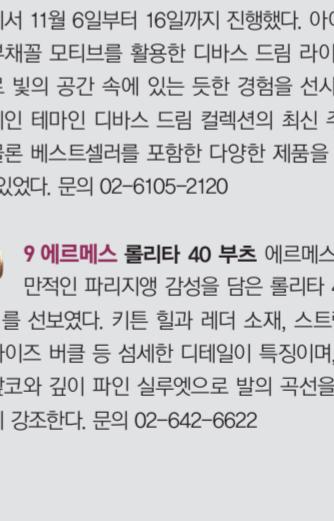
1 랄프 로렌 컬렉션 탐린 베스트
랄프 로렌 컬렉션에서 메리노 시어링으로 제작한 탐린 베스트를 출시했다. 포근한 크림 톤 인감과 다크 브라운 컬러 나파 레더 소재의 투톤 컬러 매치로 세련되고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전면에는 시그너처 하드웨어를 사용한 풀 자퍼 여밈을 더해 실용성과 스타일을 갖췄다. 문의 02-3467-6560

2 그라프 신세계 본점 부티크 오픈
그라프가 국내 여덟 번째 공식 부티크를 신세계 본점에 오픈했다. 키네틱 아트에서 영감받은 볼록하고도 오목한 형태의 그라프 아이콘을 교차하며 입체적인 물결 디자인과 빈틈없는 편구조가 매장 내부를 완성한다. 전제적으로는 청자빛 인테리어로 브랜드 고유의 럭셔리 미학을 담아냈다. 문의 02-2150-2320

3 샤넬 뷰티 2025 홀리데이 향수 컬렉션
샤넬 뷰티에서 가브리엘 샤넬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52지
심벌인 진주, 밀, 꼬메뜨, 사자, 깨멜리아를 반영한
2025 홀리데이 컬렉션을 선보였다. 'N°5 오 드 빠르
펠 펄스 스프레이', 'N°5 오 드 빠르펠', '코코 마드모
아젤 펄리 바디 오일', '상스 오 스플렌디드 오 빠르
펠' 등 다양한 향수 제품을 홀리데이 기프트로 제안
한다. 문의 080-805-963

4 로로피아나 2025 F/W 홀리데이 컬렉션 출시
이탈리아 하이엔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로로피아나가 2025 F/W 홀리데이 컬렉션을 공개했다. 이번 컬렉션에서는 낮과 밤, 스키와 이브닝웨어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룩으로 구성했다. 모헤어와 부클레의 움브레 효과, 벨벳 등 다채로운 텍스처와 옛 영화의 세파이 톤에서 영감받은 컬러 팔레트가 특징이다. 문의 02-6200-7799

5 크리스찬 디올 뷰티 2025 다음 홀리데이 아트
오브 기프팅
크리스찬 디올 뷰티에서 2025년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 디올 하우스의 대표 향수 기프트 컬렉션을 제안한다. 유쾌하고 활성적인 꿈의 서커스에서 영감받아 신비로운 세계를 모티브로 다채로운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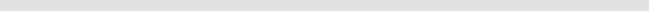
10



11



12



색채의 일러스트로 완성한 리미티드 에디션이 담긴
아이코닉한 향수를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80-342-9500

6 부쉐론 연말 캠페인, '원터 원더랜드' 프랑스 하
이 주얼리 브랜드 부쉐론에서 연말 캠페인 '원터 원
더랜드'를 공개했다. 메종의 시그너처 아이콘인 콰
트로(Quatre), 씨뱅 보헴(Serpent Bohème), 플뢰
드 펑(Plume de Paon)을 서리가 내려앉은 풍경부
터 등 활동적인 사막 등의 배경으로 다양하게 담아냈
으며, 앰배서더 한소희가 씨뱅 보헴과 콰트로를 자
신만의 스타일로 소화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02-3277-0148

7 글라슈테 오리지널 글라슈테 오리지널×마이센
독일 워치메이커 글라슈테 오리지널과 마이센 포슬
린 매뉴팩처가 협업해 수공 채색 포슬린 다이얼을
품은 세나토 마이센 리미티드 에디션을 출시했다.
3가지 다이얼 디자인으로 선보이며, 양방향 자동
와인딩과 1백 시간 파워 리저브를 자랑한다. 문의
02-3467-6426

8 불가리 홀리데이 디바스 드림 팝업
로마 주얼러 불가리가 메종을 대표하는 디바스 드림 컬렉션을
테마로 한 디바스 드림 팝업을 현대백화점 판교점
에서 11월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했다. 아이코닉한
부채꼴 모티브를 활용한 디바스 드림 라이팅 트리
로 빛의 공간 속에 있는 듯한 경험을 선사했으며,
메인 테마인 디바스 드림 컬렉션의 최신 주얼리는
물론 베스트셀러를 포함한 다양한 제품을 만날 수
있었다. 문의 02-6105-2120

9 에르메스 르리타 40 부츠
에르메스에서 낭만적인 파리지앵 감성을 담은 르리타 40 부츠
를 선보였다. 키튼 헐과 레더 소재, 스트랩, 나노
사이즈 버클 등 섬세한 디테일이 특징이며, 날렵한
얼코와 깊이 파인 실루엣으로 발의 곡선을 우아하
게 강조한다. 문의 02-642-6622

10 로에베 2026 S/S 프리컬렉션 캠페인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 생동감 넘치는 컬러와 메탈
릭 디테일을 더한 다양한 아이템을 조명하는 2026
S/S 프리컬렉션 캠페인을 공개했다. 이번 캠페인에
서는 인타르시아, 자수, 광택 등 제품의 디자인과 텍
스처를 강조했다. 문의 02-3479-1785

11 루이 비통 LV 터치 루이 비통에서 남성복 아티
스틱 디렉터 파멜 월리엄스의 워크웨어 감성을 바탕
으로 한 새로운 남성 가죽 제품 라인 'LV 터치'를 선
보였다. 하우스의 상징인 V 스타치 디자인의 스웨이
드 전면 포켓, 모노그램 플라워 장식을 매치한 V자
형 카라비너 등 다양한 디테일을 담아냈다. 여행의
헤리티지를 현대적이고 남성적인 시각으로 재해석
했으며, 4가지 스타일로 구성했다. 문의 02-3432-
1854

12 포멜라로 미국 LA 로데오 드라이브에 플래그
십 부티크 오픈
이탈리아 하이 주얼리 메종 포멜라로가 미국 LA의 로데오 드라이브에 새로운 플래그
십 부티크를 오픈했다. 할리우드 리전시 스타일 하
우스에서 영감받은 대형 입구와 프랭크 로이드 라
이트의 상징적 작품인 앤시스 하우스의 마야 양식
등이 조화를 이룬다. 문의 0030-8321-0441



LOUIS VUITTON